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 2

롬 2:6~16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첫째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예민하지 못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타인의 허물과 약점에 관해서는 반대로 매우 엄격하고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비판했던 그런 죄를 자신이 똑같이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자보다 낫고 배운 자라고 해서 못 배운 자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죄에 있어서 문제는 겉으로 나타는 것이 무엇이나가 아닙니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많이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큰 죄를 지었고 당신은 작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기징역이요, 10년이요, 6개월이요, 집행유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으로써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드러난 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죄가 들키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핑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 속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더 깊고 예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비하여 더 큰소리 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속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2:5에 내면적인 죄의 특징을 고집과 회개치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실수는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은 거부요, 교만이요 불순종입니다. 틀린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신념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반대로 고집은 망할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치 않음과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2:6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겉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죄를 짓든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꺾고 지은 그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8절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오래 참고 진실하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좇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씨는 뿌리는 대로 자라납니다. 팔 심은 데 팔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이러한 법칙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 데 그것은 팔 심은 데서 콩도 나고 콩 심은 데서 팔도 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자기는 예외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자신은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미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생각입니다. 9-1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의 경우나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외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모두가 구원이 되시는 분이시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두가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면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칭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의 모범생이요 교양이 있고 도덕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쉽게 멸시하려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속 중심이야 어떨든 간에 밖으로 들어난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가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 조각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선과 의에는 참된 기쁨이나 평강이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무서운 율법과 비교와 채찍이 있을 뿐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칭 불의하고 악하다고 정죄 받은 사람도 죄인이요 자칭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실 누구하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이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14-15절을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어도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무엇을 잡아먹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이 센 것이 이기는 비정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동물의 법칙을 사람의 세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권력가진 자는 선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선합니다. 가난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악하다는 것은 그들을 착취하고 부러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죄인인 인간이 가져온 곳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존재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동물과는 달리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양심이 그 작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능대로 살지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로마서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신성을 그곳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 속에 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율법들은 자와 율법 행하는 자

두 번째, 율법이 있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율법 때문에 망합니다. 율법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두 가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안심할 것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यो,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과 율법이란 두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이란 피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걸레 같은 선과 의가 어찌 인간에게 주신 양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진노의 날

16절이 결론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진노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시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행하는 것은 악이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악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죄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자격만 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할 자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로 인해 남을 훈계하고 재판해야 하는 분일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드러났던 드러나지 않았던 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영혼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잘 압니다.

오 주님 주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들이 변화 받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

<http://file.onnuritv.com>